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에 나타난 무용교육관 연구*

박 영 하**

I. 서론	V. 결론
II. 루소 사상의 시대적 배경	참고문헌
III. 루소의 교육관	Abstract
IV. 루소의 교육사상과 무용교육관	

I. 서론

자연과 인간의 삶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가 자연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어져 왔다. 선사 시대의 인류에게 있어서 자연은 이겨내야만 하는 극복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인류가 점차 자연의 법칙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서 자연은 인간의 삶을 용이하게 하는 활용가능성을 가진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인간은 자연에 그들의 감정을 몰입하면서 세상에서 받은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 받기위한 힐링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인류의 발전과 함께 인간은 자연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면서 함께 공존해왔다.

그러나 사회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인간은 자연을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그 가치를 절하하였고 이에 자연과 인간의 삶은 불균형을 가져

* 본 논문은 서울기독대학교 연구지원금으로 이루어졌음.

** 서울기독대학교 무용과 교수, parkyoungha@gmail.com

왔다. 사회발전은 지식의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과 고도의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물질적인 편리함과 그 혜택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긍정적인 혜택만을 준 것이 아니었다. 급격한 사회의 변동과 자연과의 불균형은 수많은 사회병리현상과 비인간화 현상을 초래하였고 인간의 소외와 비인간화가 사회의 문제가 되면서 교육의 부재 또는 비인간적 교육의 성행을 이끌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사회학자와 교육학자들은 오늘날의 사회적 문제인 비인간적 교육 형태를 자연친화적 또는 자연주의적 교육을 통해 인간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자연성을 잃지 않은 이상적인 인간과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자연주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주의 교육에 선구적인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인물로 루소(Rousseau)가 있다. 그는 그의 저서 *에밀*에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의 자연주의 사상은 다양한 관점에서 현대교육에서 해석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그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자연을 따르는 교육' 또는 '자연에 일치하는 교육'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인간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자연성을 회복하고 계발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고대시대부터 교육사상가들은 꾸준히 자연을 강조하여왔으며 현대교육에서는 자연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일깨우고 조화로운 인격으로 형성시키고자 하는 사상을 이른바 '자연주의 교육사상'이라 총칭하고 있다.¹⁾

오늘날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코메니우스(Comenius)와 프뢰벨(Frobel)의 사상으로써 자연을 신성으로 바라보는 교육관점이다. 그들은 자연이라는 것은 신에 의해 창조된 만물의 총체²⁾이므로 신과 인간과 자연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내재된 신성을 개화시키기 위해서는 유아시기부터 자연을 모방하는 교육으로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는 교육방법을 선택하여야 함을 강

1) 자연주의 유아교육 실천연구회(2011), 『자연주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서울:공통체), p.17.

2) 앞의 책, p.25.

조하고 있다. 이들의 교육방식은 인위적인 교육방법을 떠나 개인의 기질과 성향을 개발함으로써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데 그 교육목적을 두고 있다. 두 번째 관점은 루소(Rousseau)와 페스탈로치(Pestalozzi)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천성으로 보고 자연을 기초로 한 교육을 통해 인간의 내재된 자연성을 발현시키는 인간본성에 따른 교육을 강조하였다. 특히 페스탈로치는 인간의 사회적 상태가 곧 인간의 자연적 상태와 같음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본성의 회복을 위한 자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오늘날 이들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은 실물교수 또는 감각적 경험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면서 자연 그대로의 천성을 계발하고 회복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두고 있다. 세 번째 관점은 생태적 관점에 근거한 자연주의 교육사상이다. 인간의 삶은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자연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유아기 때부터 자연의 변화를 체험하도록 하여 자연현상의 변화와 자연의 규칙성을 이해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생태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적 접근은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공존함을 인식하여 지구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교육사상은 오늘날 생태교육 또는 자연친화교육으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연세계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그 교육목적을 두고 있다.

이처럼 자연주의 교육사상은 고대시대부터 오늘날의 현대교육까지 꾸준히 교육사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학과 사회학뿐만 아니라 폭넓은 교육 분야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용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자연주의 교육의 영향을 받아 생태교육 또는 자연친화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친화적 신체활동의 시도, 감각적 경험위주의 실물교육의 강조, 생태적 관점에 따른 생태무용 등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³⁾

3) 장혜란(2009), 초등학교생 숲 체험 창작무용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지영(2010), 생태주의에 기초한 무용프로그램 구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유진(2013), 한국무용 패러다임을 통해 본 생태무용의 발생배경과 범주, 대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오레지나(2011), 생태무용교육의 방향 및 목적, 『모드니예술』, 4: pp.25-33, 오레지나(2010),

이러한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시발점이 되고 오늘날 자연주의 교육의 발전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라 하겠다. 무용교육 분야에서 오늘날 자연주의 교육에서 대두되고 있는 생태무용 또는 자연친화교육 등에 관한 다양한 접근을 이루는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에 대한 무용교육학적 관점에 대한 연구는 교육학적 분석에 그치고 있으며 무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논문은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에 나타난 무용교육관을 살펴봄으로써 무용교육관과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어떠한 공통적 교육관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무용교육 분야에서의 자연주의 교육관의 흐름과 영향을 살펴보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되며 이에 본 연구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시대적 배경과 교육 원리에 관련된 연구논문 및 저서들을 분석해보았다. 또한 루소의 교육사상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사상 중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무용교육관을 추출하고 제시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루소 사상의 시대적 배경

루소는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자연과 자연 속에 감춰져있는 자연법칙을 발견한 사람이다. 루소가 주장하는 자연이란 인간의 손에 의해 변형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본래 그대로의 상태, 즉 창조주로부터 창조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⁴⁾ 그러므로 인간의 손에 의해 모든 것들이 추해지고 약해지기 이전의 선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에코댄스의 개념, 『모드니예술』, 3: pp.51-66, 오레지나(2011), 에코댄스의 구조 및 교육적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2(2): pp.31-51, 오레지나(2012), 에코댄스의 구성원리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3(2): pp.37-50; 박영하(2012), 자연주의에 입각한 유아무용교육의 방향 모색,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0(6): pp.99-116.

4) 이진구(2002),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 연구 - 자연 및 자유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루소의 기본 사상이다. 이러한 루소 사상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소의 사상적 기초가 되는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오늘날 루소는 현대교육의 새로운 원리를 도입한 위대한 교육사상가이자 심리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자연주의자이면서도 낭만주의자의 선구자로서 삶의 실존성을 강조한 실존주의자로도 불린다.⁵⁾ 이러한 그의 사상적 경향은 계몽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계몽주의는 인간의 권리와 주체성이 절대자 신에게 있는 신분주의 사상에 벗어나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계발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인간 재창조의 운동이다.⁶⁾ 이러한 계몽사상은 그 자체가 교육사상이며 교육운동이기 때문에 후대 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 받는다. 이처럼 루소의 사상도 계몽주의가 강조하는 인간의 내적 각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루소의 사상은 일반적 계몽사상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연을 강조하는 영국의 계몽주의 철학자인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과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⁷⁾ 베이컨으로부터는 “진실된 사고는 개인의 경험에 기초할 때 가능하다”⁸⁾는 사실과 자연을 탐구하는 중요성을 배웠으며 로크로부터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독립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 및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된다”⁹⁾는 자연법에 대해 배웠다. 이러한 배움은 자연적 경험을 강조하는 루소의 경험론과 인간의 실존성을 강조하는 루소의 교육론에 영향을 미치며 그의 사상의 기본 철학을 이루고 있다. 특히 로크의 교육사상을 대표하는 저서 교육론은 루소의 대표적인 저서 *에밀*과 매우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로

5) 앞의 글, p.9.

6) E. Cassirer(1951), *Rousseau, Kant, Goethe, Two essays*(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273.

7) 이해진(2008),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현대교육에 미친 영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1.

8) 앞의 글, p.21.

9) 앞의 글, p.22.

크의 교육철학이 루소의 교육철학의 기저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¹⁰⁾

이러한 계몽주의의 영향아래 사상적으로 성장하고 활동한 루소는 계몽주의 사상을 기본 바탕으로 삼고 있지만 그의 사상은 인간의 이성과 문명보다 자연성에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계몽주의의 반항아로 평가되었고 인간의 문명을 인위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은 인간의 자연성을 피폐케 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즉 문명의 발달과 진보는 인간성의 타락과 반비례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문화와 문명의 세련도가 높아질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성의 상실은 심화된다고 본 것이다.¹¹⁾ 그러므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고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순수함, 자연의 단순함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을 회복시키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 믿었다. 이러한 사상은 루소의 자연관과 자유관을 발전시켰고 오늘날 루소 교육사상의 핵심적 개념이 되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기저에는 계몽주의의 기본사상으로부터 계몽주의 시대의 여러 학자들의 사상적인 맥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계몽주의의 사상으로부터 발전해온 루소의 자연관과 자유관은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원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소의 자연관과 자유관의 개념분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Ⅲ. 루소의 교육관

1. 자연관

루소의 자연관에 관한 사상을 연구하다보면 ‘자연(nature)’과 ‘자연인’, 그리고

10) R. Robert(1957), *The Doctrines of The Great Educators*(London: Macmillan Co), p.153.

11) 이진구(2002),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 연구 - 자연 및 자유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자연에 따른다’는 세 가지 핵심용어를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루소의 교육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루소가 언급한 세 가지 핵심용어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자연’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연’은 루소의 교육사상에 있어서 출발점이며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루소는 ‘자연’의 개념을 일반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시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연’의 의미는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오늘날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안인희¹²⁾는 ‘자연’의 의미를 첫째,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둘째, 인간성장 발달의 일반적 기준이 되는 자연법칙으로 해석한다. 셋째, 자연은 모든 인위적인 것에 대한 대립된 개념으로 반사회적 또는 반문명적 의미로 해석한다. 넷째, 윤리적 접근으로 자연은 조물주의 손에서 창조된 가장 본성적인 것으로 해석한다.¹³⁾ 한편 Monroe¹⁴⁾는 ‘자연’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첫째, 인위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연을 해석한다. 둘째, 인간의 내재된 신체발달의 질서원리로서 자연의 개념을 해석한다. 셋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물들의 현상 즉 자연환경의 개념으로 자연을 해석한다.¹⁵⁾ 이처럼 루소의 ‘자연’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일컫는 자연 그 자체의 개념 보다는 사회적, 철학적, 도덕적 사상을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접근되고 있다. 따라서 루소의 ‘자연’의 개념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상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현대의 교육자들이 바라보는 자연의 개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본성적인 근원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연은 인간의 성장 발달은 인간의 내재적 자연성, 즉 내부의 자연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셋째, 자연은 인위적인 것에 반대되

12) 안인희(1997), 『루소의 교육론』(서울: 양서원), pp.107-134.

13) 이명기(2009), 루소의 자연주의 체육사상, 동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16-17.

14) p.Monroe(1928), *A brief course in the history of education*(New York: The Macmillan Press).

15) 이명기(2009), p.17.

는 개념으로 조물주로부터 창조된 가장 본질적 자연현상, 즉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 자체를 의미한다고 종합해볼 수 있다.

루소의 자연관에서 사용되는 두 번째 핵심용어인 ‘자연인’은 루소의 저서 *에밀*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의 ‘자연인’을 언급하고 있다. ‘자연인’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존재이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독자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자연인’이란 자연에 따른 교육에 의해 양육된 완전한 이상적 인간을 의미하며 타락한 사회 속에서도 자연성을 가지며 독립적이고 절대적 존재로서 참다운 자유와 평등을 소유한 행복한 인간을 일컫는다고 하겠다.¹⁶⁾

세 번째 핵심용어인 ‘자연에 따른다’의 의미는 자연에 일치하는 교육 또는 자연에 따라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따른다’는 의미가 교육과 어떠한 관련 하에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연에 따르는 교육은 본래 인간은 선한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충동이나 흥미 또한 선하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¹⁷⁾ 그러므로 자연에 따르는 교육은 인간발달의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교육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인간은 감각적인 경험에서부터 이성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할 때까지 내적발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내적발달은 가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어떠한 인위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에 따르는 교육은 외부의 억압과 강제 등의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고 가장 자연적인 모습으로 어린 학습자가 성인이 되기까지 그들의 내적인 자발성과 자연적 내적발달을 강조해야함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루소의 교육사상에서 핵심적인 교육관이 되는 ‘자연관’은 인간의 내면적·외면적 자연성을 모두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을 강조하면서 내적발달 과정에서 개인의 의지와 자율적 의지가 곧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하

16) 이해진(2008),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현대교육에 미친 영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6-27.

17) 앞의 글, pp.28-29.

고 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인위적인 것을 배제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외면적 자연성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 환경 그 자체의 자연을 의미하며 인간의 본성과 내적발달은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때 완전하고 이상적인 인간으로 발전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루소가 강조하는 ‘자연관’은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자아를 복돋아주고 환경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 자유관

루소의 자유관은 자연적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받은 선물¹⁸⁾이라고도 불린다. 루소가 주장하는 자유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으로 악이 아닌 선을 행하라는 의도에서 자유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다.¹⁹⁾ 이에 루소의 자유관에서 언급하는 ‘자유’는 자연성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간의 선한 본성과 같은 맥락을 두고 있으며 인간의 선한 본성에 따른 인간의 의지로서 ‘자유’의 개념으로 두고 있다. 루소는 이러한 ‘자유’의 개념을 자발성의 개념과 연관시키고 있으며 인간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스스로 행할 바를 선택하고 자기방식에 따라 존재하고 사물을 바라보고 느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간을 참된 자유인이라 정의하고 있다.²⁰⁾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성을 침해하지 않으며 자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교육을 좋은 교육으로 바라보았으며 루소는 이러한 교육을 “소극적 교육”²¹⁾이라 칭하고 있다. 소극적 교육은 진리나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닌 개인 스스로 지식을 발견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으로써 직접적인 간섭을 피하고 자연적 발달단계에 따라 학습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18) 이진구(2003), 루소의 자연주의 유아교육사상 연구 - 자연 및 자유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9.

19) 앞의 글, pp.20-21.

20) 앞의 글, p.23.

21) 소극적 교육에서 ‘소극적(negative)’이라는 뜻은 강압적이지 않은 교육으로서 개인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루소가 주장하는 자연적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은 인간의 교육단계를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마다 고유의 발달상의 특징에 맞게 연속적이면서도 동시에 독립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루소는 6세에서 12세까지의 시기를 아동기로 보고 이 시기는 인간이 아직 성숙되기 전의 단계로 간주하면서 완전한 소극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기는 여러 가지 과오와 악덕이 싹트는 시기이면서도 개인적으로 절제와 근절을 지니지 못하는 시기이므로 지식이나 관념을 가르치기 보다는 정신적인 기능이 완비될 수 있도록 인간의 선한 본성을 지키고 정신적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유아기의 시기에 지식과 관념을 가르치는 것은 소용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한 정신 속에 잘못된 관념을 만들게 되면 아동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시기보다도 유아기의 교육이 중요하며 교육단계 전체를 통해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교육이 발생하는 시기라 언급하고 있다.

루소는 그의 자유관을 통하여 인간의 교육은 단계별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아동기의 교육은 자연주의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육이 발생하는 시기로써 직접적인 간섭과 지식의 전달을 배제하고 아동의 자유의지를 자극하여 자립능력을 함양시켜 인간의 자연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루소의 교육관은 자연성과 자유성의 두 개념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 두 개념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자극하여 자발적이고 개인의 의지와 함께 성장하도록 가장 자유롭고 자연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관은 시대를 거쳐 오늘날 현대교육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사상은 분야에 따라 적절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으로 접근되고 있다. 루소의 교육사상은 무용교육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그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에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과 오늘날의 무용교육관은 어떠한 공통적 교육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V. 루소의 교육사상과 무용교육관

루소의 사상을 살펴보면 신체와 관련된 교육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신체적 교육관은 이미 체육교육사상에 큰 영향을 끼쳐왔음을 여러 학문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²²⁾ 본 연구는 신체를 움직임의 기반으로 다루는 무용교육사상에서도 루소의 교육사상은 반드시 관계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루소의 신체활동에 관한 사상과 무용교육에서 다루는 움직임에 관한 사상의 공통적 교육관을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적 교육관을 발견하였다.

1. 심신 일원적 관점

루소는 인간의 신체관을 두 가지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루소의 제1의 신체관은 인간을 ‘자연인’ 그 자체로 보면서 인간의 신체를 타고난 본성적 성향으로 보는 관점이라면 제2의 신체관은 자연의 조화 속에서 인간의 신체를 어떠한 방향으로 보완해야 하는가하는 환경 속에서의 신체관을 나타내고 있다.²³⁾ 즉, 루소의 제2의 신체관은 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신체는 단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간의 신체는 정신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루소는 제2의 신체관을 설명하면서 “허약한 신체는 허약한 정신을 불러일으킨다(A frail body weaken the soul)”²⁴⁾는 말을 언급하면서 이는 튼튼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신체를 길러내자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회속의 한 인간으로써 신체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만들어내자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루소는 바람직하고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건강한 정신을 북돋는다고 주장하면서 심신일원적인 신체교육관을 강조하고 있다.

22) 신명희(2008), 루소의 교육사상에 나타난 체육의 의미,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명기(2009), 루소의 자연주의 체육사상, 동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전표명(2007),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체육교과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에 미친 영향,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외 다수.

23) 이명기(2009), p.72.

24) 앞의 글, p.72.

심신의 관계와 심신의 조화를 강조하는 루소의 자연주의 신체관은 인간의 삶의 모든 행위는 항상 신체가 요구된다는 기본적 전제하에서 시작하며 이러한 삶의 주체는 인간이며 신체적 움직임은 한 객체로서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신체의 주체이면서도 객체라는 양면성을 가지는데 이는 신체와 정신이 한 인간 속에 공존하는 심신일체성의 의미로 해석된다.²⁵⁾ 이처럼 루소는 인간의 신체와 움직임에서 심신일체성을 설명하면서 신체를 통한 정신의 일체성을 재인식해야함과 동시에 신체교육을 통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주장하였음을 그의 저서 *에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이의 신체 단련은 그를 현명하게, 이성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어린이는 언제나 운동상태, 즉 뛰고 놀고, 일하고, 활동하는 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²⁶⁾

루소는 인간은 건강하고 튼튼한 신체를 통하여 사려 깊은 판단력 있는 인간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신체와 정신은 동시에 교육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강한 신체일수록 강한 정신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일원론적으로 바라보면서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강한 상호작용을 가지며 신체활동은 곧 정신활동으로 연관 짓고 있다. 이러한 루소의 심신일원론의 교육사상은 오늘날 무용교육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부터 움직임 교육 또는 무용치료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신체를 매개로 하는 무용 및 체육 분야까지 Body-Mind 통합이론에 대한 고찰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왔으며 이러한 연구는 신체의 움직임과 정신이 동일성과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²⁷⁾ 무용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25) 앞의 글, pp.73-74.

26) 앞의 글, p.75.

27) 김경희(2006), 『바테니에프 기본 원리』(서울:눈빛 출판사), 김용환 외(2004), 『체육교육총론』(서울:형설출판사), 성지민(2003), Bartenieff 신체요법의 원리와 특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손각중(2000), 심리기술훈련이 무용 수행력에 미치는 효과, 『대한무용학회지』 28: pp.161-180, 조은숙(2003), 신체정렬과 즉흥 무용을 위한 이데오키네시스의 적용,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4(2): pp.125-137, 전미현(2009), Body-Mind 통합이론에 따른 움직임 유형분석 및 무용훈련방법 연구,

Body-mind의 통합적 관점을 중요시 다루는 이유는 진정한 무용경험을 위해서는 신체와 정신이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통합적 과정을 통하여 무용수가 몸 전체를 움직이며 표현하는 신체의 변화를 감지하고 느끼고 정신적 표현을 통한 완전한 동작의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용에서 강조하는 심신일원론은 정신과 신체는 단일체이며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인간의 이성이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과 인간의 신체가 표현하는 움직임들은 동일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정신적 관념과 신체의 움직임들은 어느 한 쪽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이 아닌 서로 함께 공존하는 평행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²⁸⁾ 다시 말하면, 정신과 신체는 동일한 평행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이 느끼거나 지각하는 신체적 움직임은 신체의 관념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용교육에 있어서의 신체관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신체단련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돕는 전인적인 교육이 가능함을 주장한다.²⁹⁾

그러므로 루소의 심신일원론의 교육관과 무용교육관에서 바라보는 심신일원론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신체와 정신은 함께 공존하며 상호작용한다는 동일성과 평행성에 대해 같은 주장을 이루고 있다. 이는 움직임의 훈련을 통해 정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루소의 교육관은 신체교육을 정신교육의 바탕에 두고 신체교육 없이는 온전한 정신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신체를 통한 심신의 조화로운 육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루소의 주장은 오늘날 유아의 발달을 위한 신체활동과 움직임 교육사상의 초석을 이루고 있다. 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신체교육은 다른 영역 보다 가장 자연적이며 근본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체활동을 통한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룰 수 있다는 사상을 전제로 오늘날 유아의 움직임 교육이 실천되고 있다.³⁰⁾ 이처럼 현대의 무용교육에서 루소

『한국무용기록학회지』 16: pp.207-236.

28) 나일화(2008), 스피노자의 심신일원론에 근거한 무용에서의 신체와 표현의 의미, 『무용예술학연구』 24, pp.34-37.

29) 류진희 외(2001),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신체활동』(서울: 양서원), pp.18-20.

30) 앞의 책, pp.17-26.

의 심신일원론의 교육관은 무용교육에서 body-mind 통합이론을 지지하면서 정신과 신체의 통합을 이룬 표현활동과 움직임 교육에서 신체활동을 통해 심신의 조화로운 육성과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무용교육관과 동일한 교육관을 보여주고 있다.

2. 발달 단계적 관점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이론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존중하고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을 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적 본성이란 곧 인간의 발달단계를 의미하며 각각의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특성은 각 개인의 발달단계와 특성에 맞게 환경을 조성해주는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사는 개인의 발달단계와 특성을 민첩하게 파악하고 인간의 발달단계의 법칙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개인의 자연적 본성을 존중하는 교과과정과 교사의 지도방법은 ‘자연인’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루소는 자연의 법칙에 따른 교육관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인간의 발달은 단계를 가지며 그 단계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교육내용을 교육시켜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관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에밀*에서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에밀*의 내용은 전체 5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편은 태아기로부터 5세까지, 2편은 아동기 5세부터 12세까지, 3편은 소년기 12세부터 15세까지, 4편은 청소년기 15세부터 20세까지, 5편은 20세 이후 성년기의 여서교육 및 시민교육의 교육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다섯 단계를 일반적으로 제1기 또는 유아기, 제2기 또는 아동기, 제3기 또는 소년기, 제4기 또는 청년기, 제5기 또는 성인기로 명칭하기도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루소가 주장한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제1기 유아기는 탄생부터 5세까지의 유아시기를 의미하며 신체활동을 구속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심으로 삼고 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 존재로 간주하면서 자연적인 기질과 습성이 환경적인 제제나 방해 없이 자연스럽게 표출

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함을 강조한다. 유아기의 인간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표출하고자 하는 자연적 본성을 가지므로 이러한 자연적 본성을 방해한다면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면서 자연적 신체활동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강조하였다. 자연주의적 교육방법으로 루소는 다양한 신체 부분을 자발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시각과 촉각 등의 감각적 신체행위를 구속하지 말고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³¹⁾

제2기 아동기는 5세부터 12세까지를 의미하며 제1기 유아기가 자연성에 대한 기본적인 적응단계였다면 제2기 아동기는 자아의식의 단계로 구분 짓고 있다. 이 시기는 자연 속에서 한 개체로서의 유희활동이 천성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놀이, 게임, 운동 등의 신체활동을 통하여 신체의 모든 감각기관을 작용하게 하여 인간이 가지는 천성적 유희본능과 개인의 흥미, 관심, 동기에 따른 내적 자아의식을 인지하도록 하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제3기 소년기는 12세에서 15세까지를 의미하며 루소는 이 시기를 신체단련의 시기로 강조한다. 이 시기는 힘의 발달이 욕망의 발달을 앞지르는 시기로서 신체단련을 통하여 신체활동을 통해 유익한 지식을 얻는 중요한 시기로 판단한다. 이 시기에는 실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체활동의 경험을 강조하며 체력을 단련시키고 신체를 건강하게 단련시킴으로써 정신적인 충족을 이끌어내는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다.³²⁾

제4기 청년기는 15세부터 20세까지를 의미하며 이 시기를 ‘제2의 탄생기’라고 루소는 말한다. 이시기의 청년은 정신적인 활동이 강해지는 시기로 신체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즐거움과 만족을 느낀다고 주장한다. 이 시기에는 성(性)의식이 생기는 시기로 활발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정신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단계로 보았다. 그러므로 신체활동의 참여를 통하여 신체와 정신의 활력소와 만족감을 얻는 자연주의 신체교육의 방법을 강조하였다.³³⁾

31) 이명기(2009), pp.62-63.

32) 앞의 글, p.65.

33) 앞의 글, pp.65-66.

제5기 성인기는 20세 이후의 성인을 의미하며 평생교육에 관련하여 남성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체력을 양성하고 건강한 신체를 갖는 것을 강조하며 여성은 건강과 품성, 여성적인 매력을 갖추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신체활동은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신체단련과 개인의 취미, 정열, 쾌락 등의 행복을 누리 기 위한 신체교육의 내용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루소의 자연주의 신체활동은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신체활동을 강조하면서도 개인의 삶과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기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신체활동을 강조 하였고 성인기의 신체활동은 자연주의적 교육의 완성으로 보고 있다.³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루소의 발달 단계적 교육사상은 인간의 자연적 성장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인간이 발달하면서 거치는 단계별 특징에 따라 신체교육의 목적과 교육내용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루소의 발달 단계적 관점에 따른 교육사상은 오늘날 무용교육에서 다루는 발달 단계적 교육관과 흡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무용교육 분야에서 신체활동의 발달단계이론 중 가장 저명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신체활동을 위한 유아교육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체육교육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다루어지는 발달단계이론은 갈라후(Gallahue)의 운동발달단계 이론이다.³⁵⁾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발달은 단계적 발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하고 필요한 교육내용이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갈라후는 인간의 발달단계를 4단계로 구분 짓고 1단계는 반사적 동작기(Reflexive Movement Phase)로 태아부터 1세까지를 의미하며 미숙하고 비협응적인 동작이 시작되는 시기이지만 가장 본능적인 반사적 움직임이 나타나는 시기로 두고 있다. 2단계는 초보적 동작기(Rudimentary Movement Phase)로 1세부터 3세까지의 유아기로 구분 지으며 초보적인 운동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신체발달의 성숙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움직임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움직이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연스럽게 강제적이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도

34) 앞의 글, pp.66-68.

35) 류진희 외(2005), pp.13-33.

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 시기의 신체활동은 환경적 자극과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창의적 움직임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 3단계 기본적 동작기(Fundamental Movement Phase)는 3세부터 12세까지를 의미하며 이 시기에는 신체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신체적 발달과 함께 신체발달을 배양하기 위한 기본적인 움직임을 습득하는 교육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시기는 구체적인 동작기술의 습득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신체활동 교육내용은 신체활동을 유지하고 지속하게 하여 신체단련과 함께 운동능력, 지각발달, 인지발달, 정서적 발달이 함께 성숙되도록 하는 중요한 시기중 하나로 강조한다. 4단계 전문화된 동작기(Specialized Movement Phase)는 12세 이후부터 성인기까지를 의미하며 신체활동을 통한 체력단련과 정신적 성숙단계로써 신체활동을 평생활동단계로 두면서 개인의 취미, 욕구, 만족을 누리며 전문화된 신체활동 또는 정서적, 정신적 만족감을 누리면서 신체활동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교육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루소의 발달 단계적 교육관과 갈라후의 운동발달 단계적 교육관이 단계별로 완벽하게 일치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루소의 발달 단계적 교육관은 갈라후의 운동발달 단계적 교육관과 단계적 교육내용에 있어서 공통점을 확실히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루소의 발달 단계적 교육관은 1단계에서 개인의 자연성을 존중하며 방해받지 않은 신체활동 교육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갈라후의 운동발달단계의 1단계와 2단계에서 개인의 움직임의 욕구를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자발적이고 즉흥적인 움직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교육내용과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루소가 주장한 제2단계는 12세까지의 아동기를 의미하며 이시기는 개인의 신체단련과 자아의지를 통한 도덕성, 사회성 등의 정신적 성숙을 배양하는 교육내용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갈라후의 운동발달단계에서 3단계에서 다루고 있으며 인간의 발달을 위해 반드시 습득해야 할 기본동작들을 습득하고 성숙시키는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 시기에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정신적 발달도 도모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루소와 갈라후 모두 신체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루소의 발달 단계적 교육관에서 3,4,5단계는 갈라후의 4단계에 해당되며 이 시기는 12세 이상부터 성인기에 해당하는 단계로 평생교육과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발달단계로서 신체단련을 통해 개인의 삶의 만족과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의 활용에 초점을 두어 신체활동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개인의 삶의 만족을 누리는 신체교육의 완성을 도모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루소와 갈라후의 발달단계 이론은 인간의 성장에는 자연적인 성장과정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인간의 성장은 각각의 단계별 특성을 지니며 이에 따른 단계별 교육내용을 제공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기에 따라서는 루소와 갈라후가 구분지은 단계는 연령에 있어서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태아부터 3세까지, 3세부터 12세까지, 12세부터 성인까지의 구분으로 공통적인 교육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각의 발달단계에 따른 동일한 교육내용을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3. 직관 경험적 관점

루소의 교육사상을 살펴보면 학습자 중심의 경험중심사상을 그의 저서 *에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루소는 인간은 세상의 어떠한 실물에 대해서도 지식이 없는 채로 태어나지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감각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교육은 반드시 인간의 타고난 감각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이며 이러한 감각기관을 통한 학습이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감각기관의 중요성과 감각기관을 통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감각은 우리의 기본적인 능력이며 어린 시절에 완성해야 할 능력이다. 다른 능력에 앞서 최초로 계발하고 훈련하여야 한다. 감각 경험은 단순히 그 기능의 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능력에 의해 올바른 판단을 배우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느낌을 학습하는 것이다. 판단에 어떠한 자극도 주지 않으나 신체단련에 쓸모가 있는 순전히 자연적이며 기계적인 훈련이 있다. 예를 들면 수영을 하거나 뛰고 달리고 던지고 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우리는 손과 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도 있다.”³⁶⁾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루소는 지식의 습득은 감각적 경험에서 유래된다는 경험론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감각적 경험을 가진다는 것은 지식획득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³⁷⁾ 이에 루소는 암기와 기억위주의 교과중심교육을 비판하며 실물을 경험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관념과 지식을 획득하는 감각훈련 방법을 중시하는 실물교육과 감각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루소는 촉각,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지각을 훈련시키는 감각경험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면서 획일적인 답을 요구하는 교육과는 달리 직접 학생이 참여하여 경험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는 직관적 경험교육을 강조하고 있다.³⁸⁾

루소가 주장한 직관적 경험교육은 오늘날 무용분야에서도 끊임없이 다루어지고 있는 교육내용이라 할 수 있다. 안대열³⁹⁾은 그의 논문에서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의 세계는 살아있는 춤을 위한 근본적인 바탕이 된다”고 논한 바 있으며, 손재현⁴⁰⁾은 그의 논문에서 무용수가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미적경험과 무용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물리적 경험이 중요하다고 논하고 있다. 이처럼 일상 경험과 미적경험은 무용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움직임이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는 것처럼 인간의 감각적 경험은 인간의 본성적 움직임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용이 일상적 움직임의 생생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면 표현능력은 무한해 질 것이며 무용에서의 경험은 중요하다는 결론을 가지게 된다.

오래전에는 예술로서의 무용은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소수의 전유물로 인식되며 무용은 인간의 모든 다른 활동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해야 하며 인간의 삶이 영위하는 사회

36) 이명기(2009), pp 80-81.

37) 앞의 글, pp.81-82.

38) 앞의 글, pp.82-83.

39) 안대열(1995), 무용경험의 실존주의적 가치와 교육적 중요성,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23.

40) 손재현(2009), Dewae의 실용주의 미적 경험과 무용,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7(4), p 331.

적 상황에 기반을 두면서 모든 경험들을 토대로 무용을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일상적 경험은 무용예술과 동질성을 가진다고 여겨지고 있다. 드웨이(Dewey)는 *경험으로서의 예술*이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 무용은 인간의 일상적 삶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예술적 경험과 일상적 경험은 무용예술의 실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드웨이는 자연과 인간은 연속성을 가지며 예술의 근원을 자연 안의 생물체의 활동이라 주장하면서 예술에서 추구하는 미적이라는 것은 자연과 생물체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미적경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와 일상적 관점으로부터 비롯된다⁴¹⁾는 것을 의미하며 무용에서의 미적경험은 인간의 모든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에 근원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드웨이가 주장하는 경험이론은 자연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⁴²⁾ 즉 자연과의 상호작용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경험은 미적경험의 원천이 되며 개인의 일상적 삶에서 겪는 모든 경험은 무용과 연속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드웨이의 주장은 인간의 타고난 감각기관의 사용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을 이루도록 하며 인간의 감각기관은 교육의 근본을 이룬다는 루소의 주장과 동일함을 발견할 수 있으며 더욱이 생명체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적 관계성을 유지함으로써 삶의 모든 경험을 중요시하는 드웨이의 주장은 무용을 가르치고 무용교육을 위한 미적경험에 대해 접근할 바를 인도하고 있다. 따라서 미적경험에 대한 무용교육관은 직관적 경험론을 강조하는 루소의 자연주의적 교육사상과 공통적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41) J. Dewey(1934), *Art as Experience*(NY, Minton, Balch& Company), p.14.

42) 손재현(2009), Dewey의 실용주의 미적 경험과 무용,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7(4), p 334.

V. 결론

자연과 인간의 삶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은 시대에 따라 관점을 달리하여 왔으며 이전에는 자연을 활용하고자 하는 도구적 관점으로 자연에 접근하였다면 오늘날은 자연의 법칙을 깨닫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고자 접근방식과 태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접근방식과 태도의 변화는 교육의 패러다임도 변화시켰으며 교육 패러다임은 인공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일깨우고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살펴보면서 현재의 무용교육사상이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관과 어떠한 공통적 관점을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과 무용교육관은 세 가지의 교육관점에서 공통적 교육내용을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신체와 정신은 상호관계 하고 있으며 신체발달은 곧 정신발달을 이루는 일체성을 가진다는 심신 일원론적 교육관이다. 둘째, 인간의 본성적 발달단계에 따라 성장하며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다르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발달 단계론적 교육관이다. 셋째, 인간의 감각은 지식을 습득하기위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므로 감각을 통한 경험교육이 반드시 강조되어야한다는 직관적 경험론의 교육관이다. 이러한 결과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오늘날의 무용교육사상과 무관하지 않으며 무용교육사상의 흐름과 발전에 자연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과 무용교육의 교육사상을 비교분석해보는 것은 현 무용분야에서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영향과 흐름을 분석하고 자연주의적 교육관의 발전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경희(2006). 『바테니에프 기본 원리』, 서울: 눈빛 출판사.
 김용환 외(2004). 『체육교육총론』, 서울: 형설출판사.

- 류진희 외(2001).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신체활동』. 서울: 양서원.
- 안인희(1997). 『루소의 교육론』. 서울: 양서원.
- 자연주의 유아교육 실천연구회(2011). 『자연주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서울: 공동체.
- Cassirer. E.(1951). *Rousseau, kant, Goethe. Two essay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ewey. J.(1934). *Art as Experience*. New York; Balch& Company.
- Monroe. P.(1928). *A brief course in the history of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Press.
- Robert. R. Rusk.(1957). *The Doctrines of The Great Educators*. London: Macmillan Co.
- 나일화(2008). 스피노자의 심신일원론에 근거한 무용에서의 신체와 표현의 의미. 『무용예술학연구』. 24(여름호): 34-37.
- 박지영(2010). 생태주의에 기초한 무용프로그램 구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박영하(2012). 자연주의에 입각한 유아무용교육의 방향 모색. 『대한무용학회지』. 70(6): 99-116.
- 성지민(2003). Bartenieff 신체요법의 원리와 특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손각중(2000). 심리기술훈련이 무용 수행력에 미치는 효과. 『대한무용학회지』. 28: 161-180.
- 안대열(1995). 무용경험의 실존주의적 가치와 교육적 중요성,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오레지나(2011). 생태무용교육의 방향 및 목적. 『모드니예술』. 4: 25-33.
- 오레지나(2010). 에코댄스의 개념. 『모드니예술』. 3: 51-66.
- 오레지나(2011). 에코댄스의 구조 및 교육적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2(2): 31-51.
- 오레지나(2012). 에코댄스의 구성원리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3(2): 37-50.

- 이유진(2013). 한국무용 패러다임을 통해 본 생태무용의 발생배경과 범주. 대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미간행.
- 이명기(2009). 루소의 자연주의 체육사상. 동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미
 간행.
- 이진구(2002).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 연구 - 자연 및 자유를 중심으로. 대구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이혜진(2008).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현대교육에 미친 영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장혜란(2009). 초등학생 숲 체험 창작무용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전미현(2009). Body-Mind 통합이론에 따른 움직임 유형분석 및 무용훈련방법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16: 207-236.
- 전표명(2007).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이 체육교과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에 미
 친 영향.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숙(2003). 신체정렬과 즉흥무용을 위한 이데오키네시스의 적용. 『한국무용교
 육학회지』, 14(2): 125-137.

논문투고일	2013년	8월	15일
심사일		8월	19일
심사완료일		8월	26일

Abstract**A Study on the perspective of Dance Education presenting
in Rousseau's Naturalistic Thought**

Young-ha Park
Professor
Seoul Christian University

Human's life and nature have deep relation. As changing era, Human has changed their attitude and thought about nature. These changing paradigm on nature led change of paradigm in Education. Education approaches to avoid artificial aspects in education and to enhanc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s life as emphasizing human nature. This educational tendency affects to entire area of education. Therefore, This study seeks common educational perspectives between dance education theories and Rousseau's Naturalistic thought. Finally, This study found three dance educational perspectives presenting in Rousseau's Naturalistic thought; Identity-theory perspective, developmental-stage perspective, intuition-experience perspective. This study contribute to tract and index the stream and effects of Naturalistic education in dance education area.

keywords: Rousseau (루소), Naturalistic Thought(자연주의 사상), Naturalistic(자연주의), Dance Education(무용교육), educational theory(교육철학)